

# PL 480호 농산물 현금판매

## —잉여농산물 현금거래 시작되면 식량사료 수급에 압박예상—

미국 정부가 1974년부터 잉여농산물 장기차관을 중단 현금 판매로 전환한다는 발표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의환, 재정, 식량, 사료 수급면에서 적지 않은 압박을 가져올 것 같다. 9월 15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에 체결한 1억 2천6백80만달러의 잉여농산물차관 협정가운데 1차로 소맥 18만톤, 옥수수 6만 7천톤, 원면 2만 5천표동, 2만2천 60만 달러에 해당하는 PA(구매승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미공법 480호에 의하면 잉여농산물 장기차관도입은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따라 미잉여농산물 판매대전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 재정차관의 원리금(元利金) 상환자금 충당등 불가피할 지출때문에 경제개발특별회계 및 재정자금 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예탁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없을 것 같다.

올해 재정차관 특별회계에는 잉여농산물 판매대전으로 1억1천4백 79억원이 계상돼 있으나 최근까지의 PA 발급실적이 2천6백60만불에 불과하여 3백 73억원에 세입결함이 발생했다. 또 최근까지 들어온 외곡도입 실적은 쌀 42만4천톤 보리쌀 33만3천톤 소맥 1백20만톤, 옥수수 29만톤, 콩 4만5천톤인데 이중 쌀에 있어서 대일도입분 15만톤 미개발차관자금 2천5백만 달러에 의한 약 11만톤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KFX(정부보유물)에 의한 도입이고 이미 PA가 발급된 소맥 18만톤 옥수수 6만7천톤을 제외하면 나머지 양곡도 거의 KFX 도입으로 알려져 보유 외환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잉여농산물 장기차관을 중단 현금판매로 전환하게 되면 올해 도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양곡도입을 위한 새로운 외환 조절 창구가 마련돼야할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예산운용 및 외환수급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외환수급대책, 재정세입대책에 대한 긴급방안을 속의 이미 구매계약이 체결된 금년도 잉여농산물에 대한 미축의 PA 발급을 촉구하는 한편 내년 이후 양곡도입을 위한 새로운 외자조달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15일자 조선일보 사설과 중앙일보의 사설은 미공법 480호의 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

### 미공법 480에 의한 공급중단 큰 충격

미국이 장기저리차관(미공법 480)에 의한 농산물 수출을 국제수지사정을 내세워 상업시장을 통한 현금판매로 전환키로 했다는 것은 그것에 매달려 식량부족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적 조치가 안될 수 없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 농무성은 이미 이 조치에 따라 소맥 옥수수 원면 쌀 등에 대한 구매승인의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하며 74회계년에도 그것을 풀 전망은 없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미공법 480에 의해 해마다 대충 2억달러 안팎으로 미국 농산물을 도입하여 식량

무속의 압도적인 부분을 매워왔을 뿐 아니라 그 판매대전을 재정에 전용함으로써 경색화의 일로를 걸어온 이 부분에 또한 큰 도움을 주어 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로 해서 당장의 외화압박을 크게 완화해 줄 수 있었다는 것 까지를 감안할때 미국의 이 조치는 우리에게 몇 점으로 중대한 차질을 빚게 만들 것에 틀림없다.

그런 중대성에 비추어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지역 통상진흥회의는 미국의 이 조치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조속히 PA(구매승인) 발급을 재개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고 전하고 있거니와 이미 체결된 협정마저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무시한채 PA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미국의 국제수지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좀 너무하는 처사라는 생각을 짓을 수가 없다. 미공법 480에 의한 올해 농산물 장기차관협정규모는 1억7천9백만달러인데 대해 그중 5천만달러는 작년에 앞당겨 사용했고 따라서 1억2천 9백만달러여치가 올해 도입분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최근의 농산물가격의 폭등사태와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금수조치 그리고 이번 장기저리판매의 중단등 일련의 사태는 새삼 우리에게 그 국내적 자급도의 제고가 얼마나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주곡과 대체 식량에 대대적인 증산을 위해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동안 방만하게 방치된 속에서 무분별하게 조장되어온 식량낭비의 습성을 고쳐잡는데도 이 기회에 단호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위에 주식의 분식장려의 대의의존을 조장하는 대체가 아니라 감자 고구마 기타의 국내 생산증대가 가능한 대체식량의 개발과 소비를 권장하는 등 식생활 개선방안도 종전의 그것과 다른 방법이 과감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분식장려도 연간 2백만톤의 소맥수입을 불가피하게 만든 결론이 이제 한햇동안에 3배로 폭등한 소맥을 현금으로 사들여 오는 국제수지의 증압을 감내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깊이 되새기는바 있어야 할 것이다. 한때 뛰니 뛰니해도 해방이후 4반세기를 걸쳐 년년이 이어져온 무상—유상(장기저리)의 미잉여농산물원조에 대한 의존체질이 단시일에 해결될 것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미국잉여농산물의 풍족한 공급이 그 국내생산의 상대적인 감퇴를 결과하는 것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경제원리의 초보적인 상식으로서는 결코 억지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측은 적어도 우리의 전기한 노력에 의해 공법 480에 의한 공급중단이 큰 충격으로 되지 않을때까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줘야 할 도의적인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줄 안다.

어쨌든 농산물 수출의 갑작스런 현금환매로의 전환이 줄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을 감안하여 미국정부가 그 조치를 재고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두고 싶은 것이며 아울러 그것을 위한 우리 정부의 효과있는 외교적노력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조선일보에서>

## 농정의 전면적 재고 불가피

미국은 GATT 총회를 앞두고 농산물금수조치를 일부 풀어놓은 대신 10월 1일부터 수출 농산물은 현금판매만 허용할 것이라 전해진다. 30~40년의 장기차관까지 제공하던 미국이 현금판매만 하는 경우 그동안 차관형식으로 수입하던 식량부족 국가에는 심대한 충격을 줄 것이 확실한데 우리의 경우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잉여농산물차관 협정 규모는 1억7천9백만달러이나 그 밖에도 연불수입 AID 차관등을 고려할때 외상 내지 차관으로

들어오는 대미 농산물 수입규모는 3억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확정된다. 더우기 같은 식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값이 오른 것을 계산한다면 앞으로 출잡아 연간 5억달러 이상의 외환 지출 요인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농산물판매방식이 변경됨으로써 우리가 입게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을 거친 긴급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우선 외환사정이 큰 압박을 줄 것은 명약관화 하므로 이에 따른 국제수지조정작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클로즈업 된다. 그동안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0억달러 수준에 있어도 차관 연불수입등 때문에 외환보유고는 늘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출잡아 연간 5억달러 규모의 식량 사료 그리고 원면 수입분이 현금 지출요인으로 바뀌는 것이라면 8억달러의 보유 외환만으로는 감당키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현금구매가 불가피하다면 그 자원을 별도로 염출하든지 아니면 수입계획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조정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구조나 국제금리동향으로 보아 우리는 불가피하게 수입계획을 재조정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잉여농산물판매대전의 상당부분이 일반재정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근자의 경향이었다 하겠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전체로해서 74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근본적인 손질을 해야 할 것이다. 세입예출이 이로써 크게 뒤떨리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근본적으로 다시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새로운 조치는 차관과 연불수입으로 원면을 들여오던 면방업체의 자금사정을 급변시킬 것이며 그 때문에 추가 금융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면방업체의 사업상의 비중으로 보아 이 문제는 지금부터 충분한 대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번 미국의 충격적인 조치는 또다시 우리의 농정문제를 반성케 한다. 그동안 우리의 식량자급 계획은 몇번이나 연장 또 연장으로 그 시한을 늦추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은 안일한 방식이 통할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시한을 정하고서 집중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농정자세의 확립이 이제 더욱 절박하게 되었으며, 때문에 농정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본란이 누누에 주장한바 있듯이 오늘의 내외정세로 보아 우리의 농정은 토지생산성을 기초로하는 주곡생활체제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할 너무나 많은 긴급과제등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인 제약요인을 외면한채 농정의 중심을 분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정의 기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중앙일보에서>

## 수의 축산업계 희소식!

### 동물용 연속주사기 입하

제조원 : 일본후지히라 공업(주)(FHK)

판매원 : 한국이화학(주)(내자)

아림교역상사(외자)

주 소 : 서울 종로 3가 37-6

전 화 : 72-9952 · 73-5853 · 75-2098

### 취급 품목

1. 수의 축산기구
2. 농업용 시험기구
3. 이화학 기구
4. 각종 시약
5. 농기구(파종기등)